

2018

2

2020

SMART

편리한 스마트 도시
활력 있는 지역경제

스마트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세종시는 제대로 자족기능을 갖추고
성장해야 합니다.

미래를 지향하며 건설 중인 세종시에게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등 4차산업은 기회입니다.

한창 건설 중인 도시이기 때문에
새로운 첨단기술을 적용하고 시험하기에 적합합니다.
이제 행정도시의 틀은 어느정도 갖췄습니다.

이제 우리 세종시는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

5-1 생활권 국가시범도시 선정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SPC 민간부문사업자 공모 사업설명회

2018년 1월 29일,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5-1 생활권(합강리)이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됐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날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종(274만㎡, 83만평)과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219만㎡, 66만평) 등 두 곳을 시범사업지로 확정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시)와 한국수자원공사(부산) 등 공공기관 주도로 향후 5년간 조성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는 도시설계 단계부터 시공까지 스마트시티 주요 기술이 대거 적용된다. 특히 세종시는 에너지·교통을 기본으로 다양한 생활체감형 기술이 함께 구현되며, 세부 콘텐츠는 구상·설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굴·접목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5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정부 R&D 및 정책예산의 집약,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 검토, 시민참여 활성화 등 전방위 지원이 뒤따른다.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세종시는 기존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추진계획(2017~2030)'에 따라 로드맵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가시범도시 선정으로 사업 추진에 날개를 달게 됐다. 5-1생활권은 KTX 오송역(14km)을 비롯해 경부·호남 고속철도, 경부·중부·천안~논산·서울~세종(2025년 준공) 고속도로, 청주공항(37km) 등과 인접해 있다.

주변에는 정부세종청사, 국책연구단지, 대학(KAIST 등), 대덕연구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첨단산업단지(4·6 생활권)등이 입지한다. 주거·행정·연구·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된 자족도시 조성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세종시를 ▲에너지 ▲교통 ▲생활·안전 등을 기본 개념으로 스마트시티로 조성할 방침이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 AMI 및 전력중개판매 서비스 도입, 제로에너지단지 조성 등으로 주거비용 절감 및 지속가능한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교통 부문에서는 자율주행 정밀지도,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C-ITS 등 스마트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대중교통, 커넥티드카 등) 등이 계획됐다. 생활·안전 부문에서는 스마트팜, 미세먼지모니터링, 재난대응 AI 시스템 등이 도입된다.

특히 국가시범도시를 플랫폼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에너지, AI 등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미래기술이 집적·구현되도록 하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 운영으로 도시문제 해결과 신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시민행복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도시

2018년 7월 16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시범도시 총괄계획가(MP), 유관부처, 지자체(세종시, 부산시), 사업 시행자(LH, K-Water)와 함께 국가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이날 세종시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MP)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는 세종 5-1 생활권은 '시민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또 우리나라 도시 및 세종시 고유의 문제점을 분석해 시민 행복을 위한 7대 혁신 서비스를 도출했다. 이중 △모빌리티 △에너지와 환경 △헬스케어 △교육 등 4대 핵심요소가 강조됐다.

이는 세종 5-1 생활권에서 그간 제시된 교통·에너지 개념 이외에도 세종시에 부족한 헬스케어 및 교육 서비스와 관련된 신기술과 서비스를 접목함으로써 시민 행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것이다.

도시 공간구조에도 혁신적인 제안이 담겼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 공간체계로서 기존과 같은 용도지역에 기반한 도시계획에서 탈피해 도시 전체를 리빙·소셜·퍼블릭으로만 구분하는 ‘용도지역 없는 도시(용도혼합 및 가변)’를 주요 도시구성 체계로 제안했다. 또한 도시 내에서 개인 소유 차량을 이용한 Door-to-Door 이동에 따른 교통혼잡 문제, 도시 전체 관점에서의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 ‘공유 자동차 기반 도시’의 개념을 제시했다.

개인 소유 자동차는 생활권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주차하고 내부에서는 자율주행차량과 공유차량 및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교통운영 체계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SPC 민간부문사업자 공모 사업설명회

2023년 국가시범도시 입주

세종시는 2019년 7월 기존 스마트도시 추진본부를 개편하는 한편, 공간구성 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국가시범도시 민관 사업법인(SPC) 참여기업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에서는 Sejong O1 컨소시엄(대표사 LG CNS)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국가시범도시 SPC는 앞으로 5년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한 후 10년간 도시의 운영을 맡게 된다.

LG CNS가 대표사를 맡은 이 컨소시엄에는 LG유플러스, KB금융그룹, 한양, 신한금융그룹, 메타빌드, 휴맥스모빌리티,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이에이트, 이지스자산운용, 포티투닷(42dot), 위즈돔, 나인투원 등이 참여했다. LG CNS는 AI와 빅데이터, 모빌리티, 5G, 헬스케어 등 스마트시티의 핵심 IT신기술을 바탕으로 컨소시엄을 함께 꾸린 분야별 국내 1위 기업들과 협력해 교통, 환경, 안전, 주거 등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는 2023년까지 민관 융복합 스마트서비스 구축을 마무리하고 이후 국가시범도시 입주를 진행해 새로운 도시 모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 스마트도시, 세계 도시의 표준

세계 최초 스마트도시 국제인증(ISO37106) 획득



2018년 국제인증서(3단계) 수여식

세종 스마트도시가 세계 최초로 스마트도시 사업성과와 성숙도 면에서 세계적 수준을 갖춘 도시에 부여되는 '스마트도시 국제인증(ISO 37106)'을 획득했다.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12월 10일 세종시청에서 영국왕립표준협회(BSI)로부터 스마트도시 국제인증서를 전달받았다. 영국표준협회의 인증심사에서 세종 스마트도시는 도시 비전, 로드맵, 시민 중심 서비스 관리, 도시 인프라, 시민편익 등 22개 항목에서 평균 레벨3+(성숙) 이상을 획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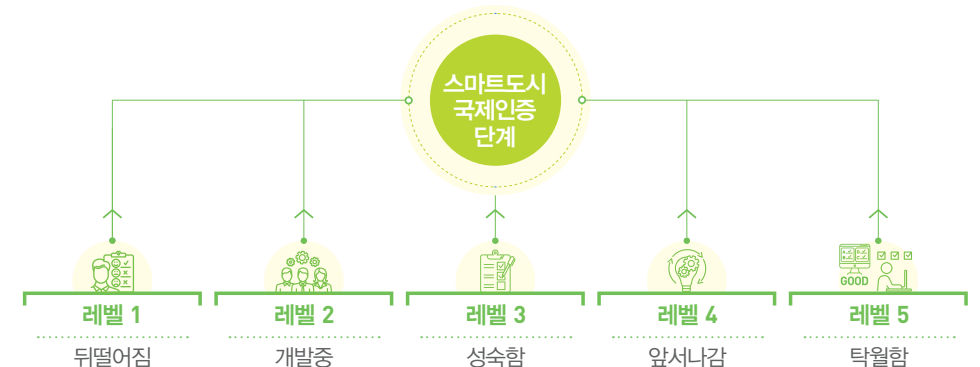
세종시가 시범운행을 시작한 자율주행 버스

세종형 스마트도시, 세계의 표준이 되다

스마트도시 국제인증(ISO 37016)은 도시 인프라뿐만 아니라 스마트도시 정책(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투자 등), 시민참여(리빙랩) 등 주로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도시 성숙도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세종시는 각 부서가 추진 중인 스마트도시 사업을 국제기준에 적용하여 현재 상황을 진단하는 계기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국제포럼 등을 통해 세종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성과를 홍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세종시와 행복청, LH는 그동안 스마트도시 국제인증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1, 2차 예비 및 현장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제인증 심사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스마트도시 국제인증 세계 5대 시범도시에 세종 스마트도시가 선정된 이후, 세 기관은 인증 요구사항을 파악해 자료를 준비하는 등 심사통과를 위해 노력했다.

스마트도시의 새 길을 열다

세종시가 스마트도시 국제인증 레벨3를 획득한 이후 다른 도시들의 인증 노력도 뒤따랐다. 세종시 인증획득 이후 대구, 고양, 화성 등이 국제인증 레벨3를 획득했으며, 중국 상하이와 서울 서초구 등도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인증절차에 따르면 인증 획득 이후 2년간 인증 유지심사를 시행, 3년차에 상위단계 인증 갱신심사를 받아야 하나 세종시는 1년차 인증 유지심사 통과(2019년 12월) 이후 1년 앞당겨 상위단계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0년 7월에 국제인증 4단계 레벨4 획득을 위한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체계를 수립했으며, 이후 '스마트도시사업 관리 운영 규정(예규)'도 제정하는 등 가장 앞선 스마트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편하고 안전한 스마트한 일상

시민체감형 스마트서비스 '세종엔, 세종안심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후
세종엔 접속자 수
변화

1,520 4.7배 7,153 명
제21대 전국 투표율 2위 (68.5%)



세종시가 방범, 교통, 미세먼지 등 76종의 도시 데이터를 제공하는 스마트 포털 '세종엔'과 모바일 비상벨 호출 서비스 '세종안심이'를 지난 2019년 12월 5일부터 시작했다. 스마트 포털과 모바일 비상벨 서비스는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확보된 방범, 교통, 재난, 환경, 자가정보통신망 등 도시 인프라를 활용한 시민 체감형 스마트 서비스다. 시는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생활편의·안전 서비스를 위한 모바일·위치기반 도시 생활 가이드 개발에 매진해왔다.

스마트도시에 어울리는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포털 세종엔은 세종 스마트시티의 지역적 특성과 개인화 기능을 반영한 위치기반 스마트서비스다.

세종엔을 활용하면 그동안 개별적으로 공개한 △내 주변 날씨 △길 찾기 △행사정보 △관광지 △맛집 △버스정류장 개인 이동수단(PM) 위치정보 등 76종의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생활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어 한층 편리해진 생활 편의를 누릴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공적마스크 판매 정보 알림 서비스와 문자 서비스에도 이용됐다. 세종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적마스크 판매처의 입고시간, 보유수량 등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구매자 간 접촉 최소화과 구매대기 단축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 세종엔의 신청메뉴를 통해 노약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에 마스크 판매처 등 구입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제공할 수 있었다. 또 이 서비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제역할을 톡톡히 했다. 투표소 대기시간, 혼잡도 알림서비스를 통해 안전한 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고, 투표소별 대기시간이나 투표율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세종안심이 서비스는 2000여대의 CCTV와 위치기반 스마트폰 앱을 연계해 비상 호출 위험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112와 119에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24시간 시민 안심망이다.

세종안심을 통해 폐쇄회로TV와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도시통합정보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세종안심이는 위치 관계 기능이 포함돼 이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치매 노인·어린이·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심 장소 출발·도착 알림 등 안전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시통합정보센터의 도움을 받아 실종사건이나 어린이·여성 등의 안전한 귀갓길 찾기에 활용할 수 있다.

세종엔(www.sejongsmart.kr)은

웹 서비스로 네이버, 다음 등 포털 검색엔진에서 '세종엔' 또는 '스마트 포털' 검색해 접속하면 된다.

세종안심이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세종안심이'를 검색·설치 후

간단한 회원가입을 통해 사용하면 된다.

세종의 스마트한 생활을
한눈에 열어줄 플랫폼

내 눈앞에 펼쳐질 스마트한 세종,
포털사이트에서 '세종엔'을 검색하세요.



서비스 고도화로 더 행복하게

세종시는 스마트서비스가 시민 일상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향후 효과적인 시민 체감형 콘텐츠 서비스를 추가 발굴하는 한편 기능을 고도화해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국어 지도 서비스로 외국인과 관광객에 불편이 없는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당장 2021년에는 한글, 영어, 일어, 중국어 4개 국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 19 감염병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감염병 이동경로 표출과 바이러스 노출 자가진단 서비스도 시작할 예정이다. 'KAIST COVID 감염병 확산방지 시스템'을 적용하여 확진자 이동경로를 표출하는 서비스로, 향후 코로나 19는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시는 평생교육진흥원이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를 세종엔 연계 서비스 제공과 시민 참여형 안전 커뮤니티 지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세종엔이 필요한 이유?

세종시청 홈페이지 통합 로그인

세종시청 홈페이지 통합 아이디로 로그인하시면 즐겨찾기, 위젯설정 등 나만의 세종엔을 꾸밀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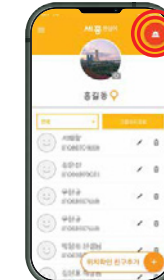
한눈에 보는 주변 정보



세종 안심을 알아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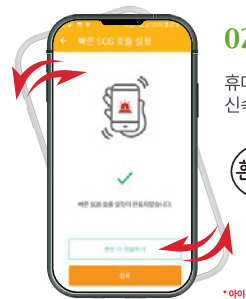
01. 버튼 SOS 호출

긴급상황 발생 시 SOS 호출 버튼을 누르면 현재 상황이 도시통합정보센터로 사진과 함께 전송됩니다.



02. 흔들기 SOS 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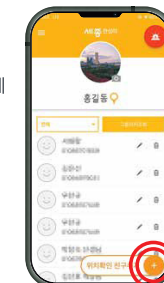
휴대폰을 흔들기만해도 신속한 호출이 가능합니다.



* 아이폰은 SOS 호출 흔들기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03. 친구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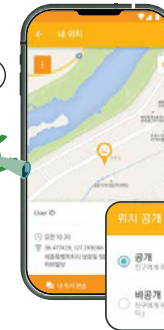
사용자와 상대방이 상호 동의하에 친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04. 실시간 친구 위치 조회

친구의 위치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안심귀가 및 사고예방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하, 건물 안 등 특정한 조건 속에서는 위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위치조회를 하려면 공개설정을 해야해!

05. 안심 장소 등록

안심장소를 등록하면 친구에게 나의 출발, 도착을 알려줍니다. ex) 학교, 집, 학원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세종안심이

SOS호출 기능과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시민안전 지원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Google Play App Store 앱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스마트하게 해결한다

'시티스마트 프로젝트' 10대 과제 추진



세종시는 시민이 함께 만들고 체감하는 똑똑한 도시 세종시를 조성하고자 '시티스마트 프로젝트' 10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기존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인프라 구축 위주가 아닌, 시민 삶과 밀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10대 과제는 시민이 직접 도시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로 선정했으며, 문제 해결과정 전반에 걸쳐 거버넌스를 기본 틀로 하고 있다.

시티스마트 프로젝트 10대 과제

시티스마트 프로젝트 10대 과제에는 총 19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10개 과제의 사업 내용으로는 △세종시 미세먼지 통합지도 구축 △데이터를 활용한 어울링 운영 개선 △스마트파킹을 통한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 △스마트팜을 통한 도시숲 활성화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전자거버넌스 도입 △디지털 사이니지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옥외광고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스마트 헬스키퍼 서비스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스마트 전력관리기술 실증사업 등이다.

세종시 미세먼지 통합지도 구축 사업은 행복청과 협력해 9개 동지역에 각 10개 내외의 IoT환경센서를 확대 설치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울링 운영 개선은 시 보유 공영자전거(2225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어울링을 재배치하고 전동킥보드와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거버넌스를 통해 주민과 전문가들이 제안한 '스마트파킹을 통한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과 '스마트팜을 통한 도시숲 활성화',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전자거버넌스 도입' 등 3개 과제도 올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디지털 사이니지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옥외광고는 최첨단 스크린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광고를 송출하는 사업으로 디지털광고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소상공인 광고를 주로 편성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취지다.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은 규제특례를 적용해 혁신서비스를 실증 및 사업화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3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 헬스키퍼 서비스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민들에게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온라인 플랫폼과 헬스케어존(2개소)을 구축해 건강취약계층에게 시범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아울러 오는 2023년까지 헬스케어존을 추가로 구축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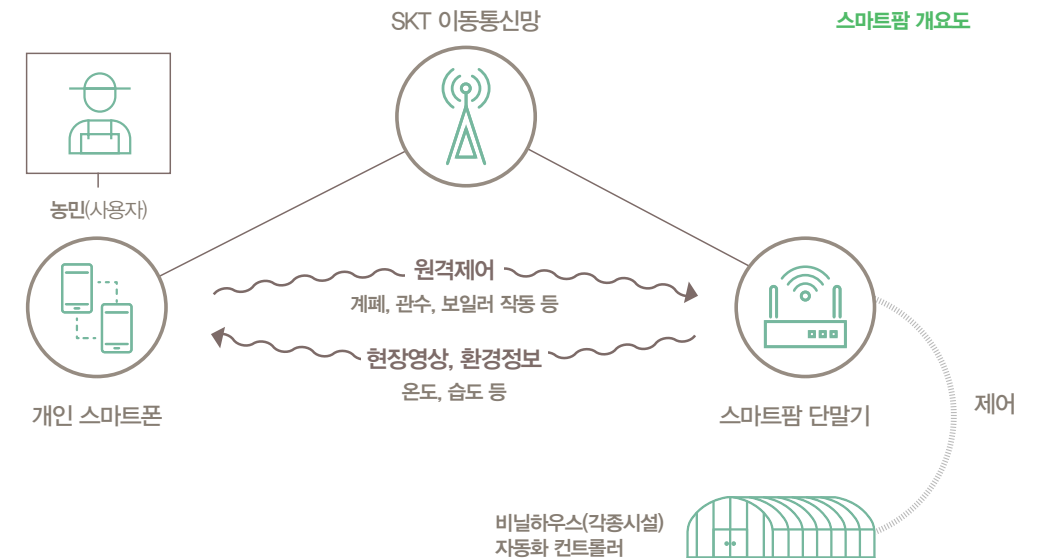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사업은 시민들이 세종형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과 서비스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오는 2022년 완료할 계획이다. 스마트 전력관리기술 실증사업은 올해 9월 완료를 목표로 증강현실(AR)을 도입해 전력설비 관리 인력과 자원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문제 발생 시 맨홀의 개폐 없이 사고원인을 파악해 즉시 대처하고, 맨홀 개폐로 인한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등의 역할이 기대된다.

시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서비스

세종시는 2020년 하반기까지 시티스마트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그 성과와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도시 사업의 정의를 더 명확히 하고 실행 주체인 조직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한다는 것이다. 또 성과평과와 환류 등 절차를 제도화해 시티스마트 프로젝트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기반을 조성한다. 이 밖에도 시는 향후 스마트도시 사업을 추가 발굴하는 등 스마트도시로서 세종시가 신속하게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에 시민과의 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시티스마트 프로젝트 10대 과제

과제명	주요내용
1 스마트 전력관리기술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기간 5억(한전자체예산) / ~2020. 9월 • 서비스지역 세종시청 보람동 일원 • 사업내용 증강현실을 이용한 전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안전 및 최적화된 전력공급 관리기술 개발
2 세종시 미세먼지 통합지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기간 5.5억 원(LH 사업비)/ ~2020. 12월 • 서비스지역 예정지역 9개동 • 사업내용 동단위의 미세먼지 환경지도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기상태에 따른 시민 행동요령 서비스 제공
3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울링 재배치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기간 비예산사업 / ~2020. 6월 • 사업내용 빅데이터를 분석결과를 활용한 과학적 정책수립과 의사결정 지원체계 마련
4 교통인프라 부족에 따른 주차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기간 총 3억 원(국비 1.5억 원, 시비 1.5억 원) / ~2020. 12월 • 서비스지역 조치원읍 원리 일원 • 사업내용 ①조치원역 인근 공영주차장 공통플랫폼 도입 및 퍼스널 모빌리티 활성화, ②원도심 공간쇠퇴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숲을 활용한 도심형 스마트팜 구축 및 온실카페 조성, ③온라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 및 홍보강화
5 원도심 공간쇠퇴문제 해결	
6 주민참여 확대 및 홍보 활성화	
7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니지를 활용한 디지털 옥외광고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기간 총 7억 원(국비 4.9, 시비 2.1) / 2019. 11월 ~2021. 12월 • (서비스지역) 나성동 794번지 일원 • 사업내용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옥외광고시장 확대 (지역광고, 상점위치안내 등)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8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기간 총 112억 원(국비) / 2019.~2023. • 사업내용 4차 산업혁명 기반의 혁신서비스를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실증과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
9 스마트 헬스키퍼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기간 총 36.8억 원(국비) / 2020.~2023. • 사업내용 헬스케어존(보건소 등)을 활용한 건강정보 수집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10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기간 총 23.6억 원(국비) / 2020.~2022. • 사업내용 시민편의를 위해 세종엔, 세종관광지도와 같은 스마트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통합제공



스마트도시에 맞는 성장전략 마련

스마트도시 연계 세종형 뉴딜사업 추진



세종시는 도시재생 뉴딜과 농산물 직거래 및 로컬푸드 사업을 통해 도농 간,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자 한다.

세종시가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에 대응하고 원도심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자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입한 세종형 뉴딜을 추진한다. 세종시는 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인간의 삶과 기존의 정치·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정부의 뉴딜정책에 발맞춰 시의 상황과 여건을 반영한 비전과 대안을 마련해 코로나 19 이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형 뉴딜 정책으로 4개 분야, 12개 추진과제, 59개의 세부사업을 국비와 민간 투자 등 2조 3,514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녹색경제를 선도할 디지털·그린뉴딜 정책을 펼쳐 세종시가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 여민전을 확대하는 등 긴급 경제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역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도시 연계한 세종형 뉴딜사업

세종형 뉴딜사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디지털 뉴딜’, ‘녹색도시 조성 등을 통한 그린뉴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시민참여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뉴딜’ 등 4가지 분야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디지털 뉴딜’은 스마트시티 조성 등 5개 추진과제, 26개 세부사업에 1조 6,966억 원을 투입한다. 스마트서비스 구축, R&D 테스트베드 제공, AI·빅 데이터 인력양성 등을 통해 스마트시티 및 관련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시범지구를 지정한다. 또 빅데이터 관제센터 등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4차산업과 관련된 산업기반을 조성해 디지털 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관련 산업과 연계해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도할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스마트공장 확산해 지역 주력산업을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중심으로 재편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이 분야의 방향성이다.

‘녹색도시 조성 등을 통한 그린뉴딜’은 환경교육도시 지정 등 3개 추진과제, 14개 세부사업에 3,165억 원을 투입해 그린뉴딜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다. 환경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민주도의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야외 도시공원과 친수공간을 더 확충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미래도시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친환경자동차와 충전 인프라 확충,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퍼스널모빌리티(PM) 활성화 등 다양한 친환경정책을 추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스마트워터시티를 구축하고 공공건축물을 그린 리모델링하는 등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생활 인프라에 친환경 개념을 도입하여 녹색도시를 실현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은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신축건물 수준으로 에너지 성능·미관·실내공기질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2개 추진과제, 13개 세부사업에 628억 원을 투입한다. 신도심에 제2 보건소를 설치하고, 감염병 관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주거복지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시민참여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뉴딜’은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비롯하여 2개 추진과제, 6개 세부사업에 2,755억 원을 투입한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농산물 직거래 및 로컬푸드 사업을 통해 도농 간,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7기 도시재생대학교 수료식

세종형 뉴딜사업

총 2조 3,514억 원

이 밖에도 여민전 확대와 지역업체 보호 강화, O2O(Offline to online) 플랫폼을 활용한 소상공인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불황을 극복할 때까지 지역경제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온라인과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체질 개선으로 위기에 취약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전통 서비스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울 예정이다.

도시재생 스마트도시와 만나다

세종시는 조치원역 중심지가 지형 뉴딜사업에도 스마트시티 기법이 적용되어 도시문제 해결과 창업기반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성공모델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원도심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도시 숲을 조성해 갈 방침이다. 또 도시재생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거버넌스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축한다. 먼저, 시는 스마트 주차장 기술을 도입한다. 이것은 조치원역과 전통시장 인근의 공영주차장 부족과 주차비용으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까지 스마트 주차 서비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시는 도시 숲 내에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해 온실카페를 조성하고 이를 활용, 도시 숲 활성화 연계 방안도 마련했다. 여기에 오프라인 거버넌스 회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뉴딜사업 홍보가 이뤄지는 전자 거버넌스 시스템도 구축한다.

데이터 기반 지능형 도시로 진화하는 세종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 조성 기틀 마련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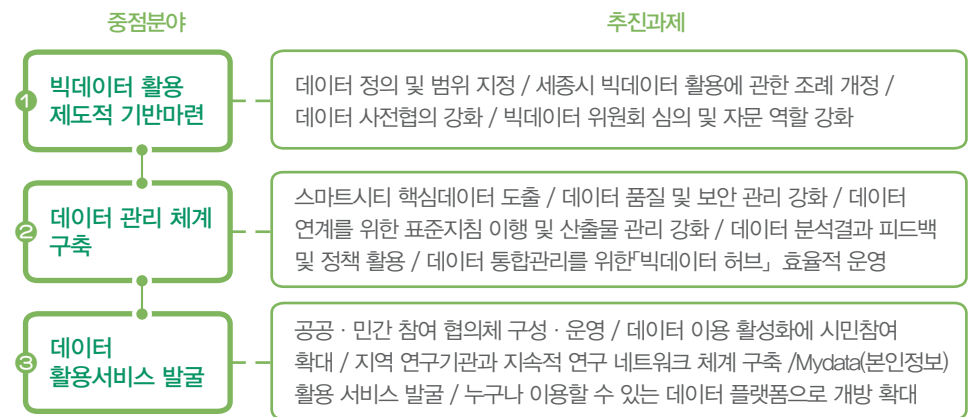
제1회 빅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대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들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산업생태계에서 빅데이터는 새로운 산업의 ‘쌀’로 주목하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의 각종 데이터를 수집, 분석, 가공하는 것부터 이를 기존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것까지 빅데이터는 미래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도시에서는 중요성이 더해진다. 데이터 댐 등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인한 디지털 국가달성 및 전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D(Data)-N(Network)-A(AI) 생태계 강화 정책에 대응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기틀이 되는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에 힘쓰고 있다.

세종시는 2018년 12월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을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2019년 7월 30일에는 체계적인 빅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같은 해 7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빅데이터 허브시스템을 구축해 데이터 유통과 수집기반을 마련했다. 빅데이터 허브시스템은 개별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던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데이터 수도로 도약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세종시는 디지털 뉴딜의 디딤돌이 될 ‘세종형 데이터 거버넌스 추진계획’을 2020년 10월에 수립하고, 시 안팎의 각종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민간기업과의 데이터를 공유·활용하여 더 좋은 스마트서비스 창출을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계획에서 시는 ‘데이터 수도 세종 구현’을 비전으로 시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3대 중점분야 14개 과제를 선정했다.



스마트한 공공정책 수립 지원

시가 빅데이터 관련 정책과 사업을 체계화하면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시는 2020년 4월7일 ‘세종형 빅데이터 허브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국민신문고, 시민의창, 콜센터 접수 민원 데이터와 주민등록, 어울링, 로컬푸드 등 행정데이터, 유동인구, 카드 매출데이터 등 민간 데이터를 망라하여 수집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업 부서의 의사결정체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세종형 빅데이터 허브에 수집된 데이터를 부서 간 공동 활용하도록 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수립, 시민 만족도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공영자전거 거치대 추가설치지역 선정은 물론 효율적인 자전거 재배치 방안을 도출하였고, 카드매출 데이터를 이용해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상황 모니터링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와 관련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제안을 받고자 ‘대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공모전에서는 접수한 총 20개 아이디어 가운데 최종 6개를 선정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문제를 정책으로 반영토록 추진 중이다

순위	선정 작품	관련부서
1 최우수	자동 크린넷 및 쓰레기 문제의 현실	자원순환과
2 우수	대중교통 및 개인 이동수단(PM) 연계를 통한 세종시 교통 환경 개선 방안	교통과
3 우수	새로운 빌딩 물관리	상하수도과
4 장려	로컬푸드 공급자 맞춤형 수요 예측 분석	로컬푸드과
5 장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가 밀집지역 자동크린넷 문제개선	자원순환과
6 장려	세종시 잡월드 직업체험관 최적의 위치선정	아동청소년과

누구나 데이터를 이용하도록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2023년까지 시는 가칭 ‘빅데이터 누림터’를 구축해 빅데이터 허브와 연계한 클라우드 환경의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이를 필요로 하는 시민과 기업에 개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데이터와 분석시스템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있다.



특히, 지역대학과 손잡고 빅데이터 분석전문가 양성에 시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협력하고, 빅데이터 인재가 관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다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에는 세종시에 있는 대학과 협업하여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에 나섰다.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하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빅데이터 분석가 양성 공모에 선정되어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홍익대 세종캠퍼스에서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진행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 청년캠퍼스 운영대학에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가 선정되어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였다.



대한민국 자율주행차의 미래를 키우다

자율주행차 산업 기반 조성



문재인 대통령과 이춘희 세종시장이 2019년 7월 24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 마련된 5G 자율주행차 시연존을 둘러보고 있다.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4차산업혁명 핵심분야인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는 세종시가 미래형 계획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만큼 자율주행 자동차 등 최첨단 신기술을 적용하고 시험하기에 최적의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자율주행 관련 국가 핵심 R&D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연구개발과 산업발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를 확보함으로써 세종시가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확보하고 나아가 자율주행 상용화 거점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점하라

세종시는 2018년 7월 자율차 산업 생태계 기반구축을 위한 '자율차 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에는 전략적 실증 R&D 투자, 인프라 구축, 기업유치·인재육성 등 3대 전략을 기본으로 총 20개 과제를 도출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는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산업통상자원부)으로 자율주행 서비스 산업이 선정되었다. 이 사업으로 시는 R&D·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의 신성장 거점을 육성할 동력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어서 시는 미래차 연구센터 설립(산업통상자원부)을 통한 연구개발 장비 구축에 나서는 한편, 기업 지원 등 산업 생태계 초기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다. 또 2019년 1월에는 국토교통부 사업인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실증지역에 세종시가 선정되면서 자율주행 국가 R&D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선정

2019년 세종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자율주행 분야로 신청해서 그해 7월에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다. 이를 통해 시는 관련 기업 유치에 발 벗고 나서는 한편, 향후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과 시장을 선도하는 데 앞선 경쟁력을 확보할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특구 지정에 따라 시는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힘쓰고 있다. 시는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스마트 모빌리티 팩토리랩 등 자율주행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진행 중이다. 또 특구 사업자 등 자율주행 관련 기업 19개사(오토노머스아이티지, 언맨드솔루션, 팬텀 AI, 라이드플릭스, AI모빌리티, 캠프로닉스, 네스원 등)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 2019. 7.~2023. 6.
특례 : 여객운수 한정면허,
개인정보 활용 가능 등
내용 : 도심·공원 자율차서비스 실증,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및 공유 기반 구축

총 **15.23** ^{km²}
행복도시 일원



자율주행 관련 국가 핵심
R&D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자율주행 연구개발과
산업발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 확보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확보

자율주행 상용화
거점도시 도약

5G 자율주행차 시연존에서
기업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규제자유특구
자율주행 시범운행에 투입된
자율주행 버스



세계 최고의 미래형 도시를 향해

세종시는 2020년 5월부터 미래차 산업분야 확대 및 선도를 위해 도심항공 모빌리티와 친환경차를 포함한 '미래차 산업발전 전략'을 수립 중이다. 또 규제자유특구 신규사업 추진을 통한 자율주행 산업 기반 및 스마트도시 서비스 확산에도 나서고 있다. 2021년부터는 자율주행 실외 로봇(음식배달, 코로나 19 방역, 보안순찰) 실증을 중앙공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자율주행차량을 활용한 여객유상운송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국토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 지정(2020년 11월) 되었으며, 2020년 12월부터 정부청사를 순환(국립세종도서관~정부청사종합안내실)하는 유상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실증을 시작으로 관련 산업 육성과 서비스 선도를 추진하고 있다. 또 충청권 협력 모델 발굴에도 힘써 인근 지역과의 교통 연계성을 높여 상생하는 모델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범부처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참여와 기업 유치로 정부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다져나갈 예정이다.

지역혁신역량 강화로 경제자족도시 완성

지역산업 혁신 거점기관 구축



2020.7.15 세종테크노파크 창립 1주년

세종시는 지역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지역 내 기업과
산업을 지원하는 혁신 거점기관을 설립해
경제자족도시 완성 및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역혁신 거점기관 설립
(세종테크노파크+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미래형 첨단산업 생태계
기반 마련

(재)세종테크노파크 설립

2019년 7월 18일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과 스마트시티 및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지역혁신 거점기관으로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가 설립됐다. 세종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사업시행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여 지원하는 기관이다. 산업기술단지는 지역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의 토지와 건물, 시설 등 인적·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킨 집합체이다. 이에 따라 시는 세종형 미래첨단기술 중심의 주력산업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게 됐고, 이로써 경제적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었다. 또 지역혁신성장을 통한 세종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테크노파크는 2023년까지 414억을 들여 현 조치원을 옛 세종시청 터에 있는 세종 SB플라자 바로 앞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본부동을 건립한다.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건립

2015년에 착공한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가 2019년 2월에 준공해 3차례에 걸쳐 입주기업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건립은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공동협력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46억 원(국비 242.2억, 시비 103.8억)을 들여 4-2생활권(금남면)에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건립한 기업지원 시설이다. 지원센터는 자율주행, 바이오산업 등 각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유치해 인프라를 지원하며, 2020년 8월 현재 다음소프트, 마스코리아 등 25개 기업과 미래차연구센터, KAIST 바이오합성연구단 등 연구소가 입주해 있다. 추후에는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실증센터, 자율차 빅데이터 관제센터도 입주할 예정이다.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조감도

세계적 규모 데이터 센터 세종에 들어선다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 및 건립

293.697^{m²} 면적 6,500 억원 투자 규모



네이버 데이터센터

네이버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입지로 세종시를 선택했다. 네이버는 2019년 10월 25일 세종시가 제안한 부지를 우선협상부지로 선정한 이후 10여 차례 실무협상을 진행한 끝에 4-2생활권 일대를 데이터센터 부지로 최종 확정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26일 세종시와 네이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데이터센터 건립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이듬해인 2020년 3월에는 입주·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밟아 2021년 3월에 데이터센터 건립 공사를 시작해 2022년 12월에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시는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원활한 건립을 지원한다.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실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지원에 나서고 LH 세종본부는 데이터센터 부지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토지매매계약 체결 및 기반시설공사 추진 등을 지원한다.

세계적 규모 데이터 센터 유치

세종시가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에 성공하면서 향후 도시의 미래와 행보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 4-2생활권(집현동)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는 춘천 데이터센터 '각'의 5배가 넘는 하이퍼스케일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네이버는 클라우드를 다가올 미래의 디지털경제시대의 토대가 되는 산업으로 판단하고,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세종시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는 약 29만^{m²}(약 9만평) 부지에 전력량 200MVA 이상의 용량으로 건립할 예정이며, 이는 국내를 넘어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는 것이 네이버의 설명이다. 이는 급증하고 있는 클라우드 산업 및 5G 기반 트랙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페이스북이 싱가포르 서부에 설립 예정인 '아세안 메인 데이터센터'(17만^{m²}, 150MVA)를 능가하는 규모다.

세종시 미래산업의 마중물 기대

세종시와 네이버는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설로 4차산업혁명 시대 디지털주권을 실현하고,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산업 등 전후방 산업 기업을 유치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양질의 데이터가 고도로 집적되어 있는 나라로, 이러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산업이 클라우드 산업이다. 네이버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산업을 통해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가공해 경제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주권을 지켜나간다는 포부다. 인공지능(AI) 같은 국내 4차산업 기술은 클라우드 기술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데이터주권을 가졌을 때 이들 토대로 발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네이버 데이터센터는 연계 가능한 산업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세종시가 추구하는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 네이버 데이터센터가 주축이 되어 비즈니스 플랫폼·창업생태계 및 기업·대학과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 네이버 데이터센터의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세수효과는 물론, 건축 등에 따른 일시적 지역 경기 부양 효과도 예상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효과는 네이버 데이터센터가 세종시의 도시산업구조를 '정보통신' 분야로 전환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관련 산업의 집적을 유도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한편, 시는 교육환경평가, 건축허가 등을 거쳐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예정대로 건립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세종시 산업생태계

4차산업 및 첨단산업 관련 우량기업 유치

총 68개사
2018년 하반기 이후
기업 유치

1조 1,146억 원
투자규모

2,894명
고용창출



세종시는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자동차, 데이터 산업 등 첨단 업종을 유치해 지역의 산업 기반을 재편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는 우량기업 유치로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과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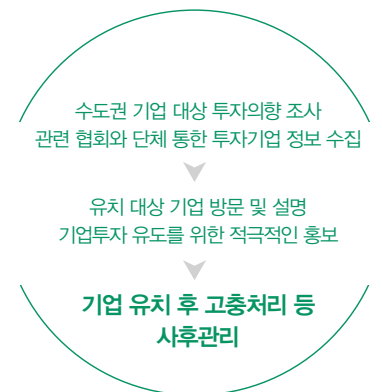
진심을 다한 기업유치부터 사후관리

세종시는 지역의 산업생태계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대기업과 우량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상시적으로 민간 기관을 활용해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협회와 단체를 통해 투자기업 정보를 수집한다.

이렇게 마련한 기초 정보를 바탕으로 시는 유치 대상 기업을 방문해 세종시 이전의 장점을 설명하는 한편, 각종 박람회에 참가해 기업 투자의 최적지로서 세종시의 강점을 집중 홍보한다.

기업 유치 후에도 세종시는 기업들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적극적인 보조로 기업의 조기정착 지원

2018년 하반기 이후 세종시에는 대기업 1개, 중견 및 중소기업 67개 등 총 68개 기업이 터를 잡았다. 이들 기업은 총 1조 1,146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며, 2,894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세종시는 파악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는 우량기업 7개사에 초기 입지 및 설비투자를 보조해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지원했다. 총 지원규모는 299억 원이며, 2개사는 입주를 완료했고, 4개사는 공사를 시작했으며, 1개사는 착공 준비를 마쳤다. 시는 이들 기업의 초기 투자로 2,440억 원이 초기에 투자됐으며, 총 342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세종시는 신규 조성 예정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핵심 업종인 전기차와 반도체 소재·부품, 자율차, 스마트시티, 바이오 업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종시가 행정도시이자 자족도시로서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산업생태계를 다져간다는 방침이다.

도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세종시 창업 지원

창업 및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창업지원)



세종창업키움센터

세종창업빌

세종시는 2018년과 2019년 행안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공간, 제품 및 서비스 시장검증, 홍보를 위한 테스트마켓 공간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시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예비창업자를 비롯해 초기 창업자에게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힘썼다.

창업 성공 가능성 높이는 창업키움센터

세종시 창업키움센터가 2019년 4월 25일에 출범했다. 옛 세종시의회 청사 앞 부지에 사업비 25억 9,600만 원을 투입해 건립한 창업키움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994㎡ 규모의 건물로, 1층은 시제품 전시장과 주차장으로, 2~3층은 업무공간으로 활용한다. 특히 2층에는 개방형 공간을 배치해 창업가들의 소통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지역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키움센터의 운영은 창업·벤처기업 지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담당한다. 키움센터의 전용 사무공간(15개)은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에게 제공된다. 시는 공모를 통해 소프트웨어·콘텐츠, ICT, 제조 분야 등 15개 기업을 선정했다. 입주 기업은 경영·세무·투자 등 경영에 필요한 전문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고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시는 SB플라자의 기술이전과 창업투자, 마케팅 관련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한편, 창업기업과 대학-기업-지원기관 간의 활발한 협업을 통해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해 창업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스마트팜·스마트시티 맞춤 지원 세종창업빌

스마트팜과 스마트시티 관련 창업벤처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세종창업빌'이 2019년 11월 21일 문을 열었다. 조치원을 남리 239에 조성한 세종창업빌은 지역 특화 분야인 스마트팜과 스마트시티 관련 창업벤처 육성의 전초기지 성격이다. 향후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곳은 네덜란드 사이언스 파크 내 '스타트업 빌리지', 서울의 '파이빌'과 '언더스탠드 예비뉴' 등의 창업 플랫폼을 본뜬 개념으로, 도전정신을 상징하는 컨테이너를 활용해 조성했다. 세종창업빌은 지상 2층 구조에 사무공간 15실을 비롯해 교육·세미나와 교류·협업의 다목적 열린 공간, 회의실 등을 갖췄다. 시는 15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기획 및 투자유치 관련 교육·멘토링 ▲개발 제품의 실증 및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성장을 지원한다.

청년창업을 돕는 챌린지랩

세종 청년창업 챌린지랩이 2019년 7월 4일 문을 열었다.

세종시 중심상가인 나성동 어반아트리움더센트럴에 들어선 세종 청년창업 챌린지 랩은 지역 청년 창업자의 안정적 시장 진출과 제품 고도화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업 시설 내에 창업 벤처 마켓 테스트베드를 구축한 것이다. 현장 반응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에게는 벤처 제품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오도록 운영한다. 세종 청년창업 챌린지 랩은 10개 호실, 7개사를 위한 전시 체험 판매 공간을 제공한다.

참여, 상생, 세종사랑 가치 담은 지역화폐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 운영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LH 세종특별본부는 '세종지역화폐 여민전 이용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시가 2020년 3월 3일 지역화폐 '여민전'을 출시했다. 여민전은 지역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카드형 지역화폐다. 여민전은 일반 시민 판매분 22억 원, 출산축하금 및 공무원 복지 포인트 등 정책발행분 48억 원 등 총 70억 원 규모로 출발했다.

여민전은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구매(충전) 한도는 월 50만 원이다. 여민전 사용이 가능한 점포는 지역 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사업 장 1만 2천여 곳으로 대규모 점포,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 · 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을 제한했다.

시민들의 열띤 여민전 사랑

여민전 앱 가입자는 2020년 8월 31일 현재 세종시 전체 성인 인구 25만 8,829명(8월 기준)의 33.5%에 해당하는 8만 6,559명에 이르고 있다. 여민전은 출시 이후, 676억 원(일반 648억 원, 기관 28억 원)이 판매됐고, 617억 원이 사용(사용률 91.3%)됨으로써 소비 진작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시민 판매실적을 보면, 4월분은 20일, 5·6·7월분은 단 하루 만에 모두 판매되는 진기록을 세웠고, 지역 공공기관에서도 여민전 구매에 동참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사용패턴을 보면 음식점업 30.6%, 소매점(슈퍼마켓, 편의점 등) 13.1%, 교육 12.4%, 보건 · 의료 11.6%, 식음료(제과제빵, 농축산물 등) 11.3% 순으로 나타났다. 사용 연령층은 사회활동이 활발한 30~40대 76.7%, 50대 13.1%, 20대 5.4%, 60대 이상이 3.8%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0년 상반기(3~6월) 세종시 하나카드사 회원의 역외소비용은 59.0%로 나타났는데, 2019년 73.7% 대비 14.7%p가 하락한 것으로 이는 지역 내 소비가 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여민전 1500억 원 이상 추가발행

세종시는 2020년 하반기에 여민전을 1500억 원 이상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상반기 300억 원보다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또 10% 캐시백 혜택을 12월까지 연장하고, 발행물량을 매월 3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여민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민전의 캐시백과 소상공인의 할인 등 2가지 혜택을 함께 제공하는 상생플러스 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상생플러스는 소상공인(가맹점)이 여민전 사용자에게 5~10%를 할인해주고 여기에 시가 캐시백을 더해줌으로써 최대 20%까지 할인 혜택(캐시백 10%, 자체할인 10%)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여민전 기프트카드를 출시해 공공기관이나 법인 등에서 포상금과 명절선물,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프트카드는 5만 원권과 10만 원권 두 종류로 발행해 NH농협은행 창구(세종시청지점, 세종조직원금융센터)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캐시백은 없다. 발행일로부터 60개월 유효하며, 권면금액까지 재충전이 가능하다.

여민전 발행 · 운영 현황(2020. 8. 31 기준)

단위 | 명, 억원, %

앱 가입자	카드 발행	발행(판매)액			사용 (결제)액(B)	사용률 (B/A*100)
		계(A)	정책(기관 판매)	일반(시민 판매)		
86,559	73,993	676	28	648	617	91.3%

지역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소상공인진흥공단 세종센터 개소

10,820^개 22,500^명
세종시
사업체 종사자



소상공인진흥공단 세종센터 개소식

세종시는 지역의 인구와 소상공인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소상공인지원센터 유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동안 정책자금 융자 등 소상공인 지원업무는 공주센터가 관할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었다.

이에 세종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종센터 유치를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2019년 8월 9일 보람동 '스마트허브1'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종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는 전국 62번째 센터 개소였다.

소상공인의 시간과 비용 대폭 감소

세종센터 관할지역의 사업체 수는 10,820개, 종사자 수 22,500명, 전통시장 4개에 달한다. 하지만 이전까지 공단 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세종지역 소상공인들은 공주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세종시는 세종센터 설치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의 확보를 위해 기재부,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을 방문해 당위성을 설명하고 세종센터 설립을 건의해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세종센터 개소가 이뤄지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편익이 크게 개선되었다.

더불어 세종센터는 지역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 개선을 위한 상담과 교육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정책자금 지원과 협업 지원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교육과 마케팅도 지원해 지역 상인들이 다시 희망을 키우고 힘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맞춤형 지원과 상권 활성화 위해 협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세종시는 세종센터 개소식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공단과 세종시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성장·혁신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보유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세종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지속해서 협력할 계획이다.

세종센터 개소식에 앞서 세종시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세종센터 개소식에서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가운데)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미래 新성장 산업입지 기반 마련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세종시 연서면 일대 277만㎡(84만평)에 2027년까지 총사업비 1조 5,496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2017년 7월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되었고, 2018년 8월 국토교통부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조치원 개발축에 위치해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오송의 BT, 천안·아산 IT 등 충청권 특화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술융합의 최적지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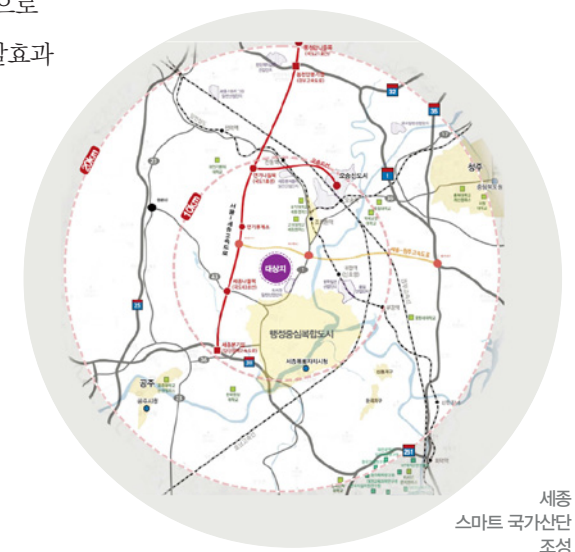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020년 9월 10일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 앞서 2019년 10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19년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여 약 10개월간 예타 절차를 진행했다. 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비용 대비 편익) 1.76, PI(수익성 지수) 1.02로 나타나 경제성과 재무성을 확보했으며, 정책성 등 4개 분야 16개 세부항목에 대해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으로 실시한 종합평가 결과 0.586(0.5 이상 타당)으로 사업 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년간 경제효과 20조 원 예상

세종시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된 만큼 LH와 협력해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국토교통부의 승인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모빌리티 등 세종시의 미래 신성장 국책사업과 정부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정책을 연계해 소재·부품 산업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면서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복합형 산업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생산유발효과 8,206억 원과 고용유발효과 5,916명을 예상하고, 조성 이후 30년간 경제적 효과는 20조 6,000억 원, 산업단지 종사자 수는 19,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역 고용 · 노동 통합 컨트롤타워 출범

세종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설치



세종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제1차 정기위원회(2020년)

2020년 1월 출범한 세종시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산업규모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인력양성 훈련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설치됐다.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역발전 속도에 맞춰 단계별로 확대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사업 수요조사 및 연구기능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과 함께 운영하던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분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시와 대전시는 유일하게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해 왔다. 7년간 급격한 인구증가와 기업체 유입 등으로 수요가 커졌지만, 지역과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기구가 없었던 셈이다. 세종시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설치에 2018년에서야 설립 방안 연구용역 착수로 수면 위에 올라왔다. 2019년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했고, 같은 해 11월 분리돼 독자적인 길을 걸을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고용과 인력양성의 거버넌스 기구로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일자리 사업 현황의 면밀한 파악과 인력양성 사업을 준비했고, 지역과 산업 수요 연계형 맞춤형 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췄다. '지역고용 거버넌스 구축으로 일자리 만사형통 세종'이 올해 비전으로 제시된 배경이다. 그 결과 산업계 주도로 관련 기관이 협력, ▲공동 수요조사 ▲공동 훈련 ▲채용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훈련이 가능해졌다. 위원회는 그 사이에서 인적자원 개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지역고용혁신프로젝트 추진 기능까지 영역을 넓혔다.

정체된 일자리, 돌파구를 모색하다

위원회는 세종시의 신규 일자리가 정체기에 들어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구는 35만여명으로 늘었지만, 증가원인은 주로 직장 이전과 발령, 전출, 창업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서다. 신규 일자리 구직을 위해 이주하는 경우는 적고, 공공행정 외 정주여건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위원회는 중장기 전략 수립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 위원회 소속 세종지역고용혁신팀은 '스마트시티 산업의 전략적 육성'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스마트시티 선도기업 발굴과 스마트시티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산업 성장도약 컨설팅 지원 사업', '스마트시티 지역기업 사업화 지원', '세종형 스마트 일자리 창출 플랫폼 구축 사업', '스마트시티 산업 고용역량 강화 지원 사업' 등을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사업으로 꼽았다. 위원회는 또 공동 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한 고려대 세종HRD사업단 등 지역 전문교육기관들과 협력해 지역 산업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집중하고 있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직접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일련의 과정이 완성되면 구직자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일터를 마련해주고, 기업들에게는 경쟁력을 강화할 기술 있는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이에 위원회는 첨단수송기계부품과 정밀의료 등 주력산업과 스마트시티 등 전략적 육성사업에 대한 연령별·성별 훈련 수요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해당 훈련 수행기관 발굴로 인력양성 활성화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지역에 맞는 직업능력 개발과 훈련 가능

한국산업인력공단 세종지사 설치



한국산업인력공단 세종지사 개청식(2020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세종지사가 2020년 9월 4일 나성동에서 개청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근로자평생학습지원, 국가자격검정(기술자격496종목, 전문자격37종목),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국제교류협력, 숙련기술진흥 및 기능경기대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 다양한 인적자원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늘어난 인재수요에 세종지사 필요성 제기

세종시 산업인력공단 업무를 대전지역본부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어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인력양성에 한계가 있었다.

세종시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자율주행 특화도시 등 산업육성 방향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재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스마트헬스케어·교육, 첨단수송기기부품, 첨단신소재·부품 등 관련 산업 등에 필요한 인재 육성과 훈련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여기에 세종시 권역 내 24,000개의 사업장, 12만명의 근로자를 비롯해 4개 대학 재학생에게 직업능력개발 및 자격검정사업의 현장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도 거점 기관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18년 7월 한국산업인력공단 세종지사 설치를 건의했다. 이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세종지사 증원요구안을 마련하고 2019년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와 심의를 거쳐 세종지사 인력증원 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되면서 개청에 이르게 됐다.

불편 해소, 맞춤형 직업능력 개발 가능

한국산업인력공단 세종지사는 세종시를 비롯해 인근지역인 공주시를 관할하게 되며 2개 부서 10명의 직원을 배치했다.

앞으로 세종지사는 산업인력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세종시의 지역적 특성, 사업체 속성, 주력산업 및 미래육성산업 등을 고려한 지역산업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및 인재육성이 가능해져 고용정책 서비스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민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없어 국가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대전까지 오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지만, 세종지사 설립으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에 맞는 우수한 일자리 만들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확대



교통사관학교 3기 수료식(2018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지역과 산업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민과 지역 기업의 수요가 반영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세종시는 지역혁신프로젝트, 일반사업,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원사업 등으로 이뤄지며, 지역 내 취약계층의 취업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교육훈련과 취업연계, 창업 등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의 근무환경을 개선(기숙사·통근버스 임차 지원)하여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세밀한 일자리 전략, 성과를 내다

세종시는 매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앞서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과 역량 있는 수행기관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이후 시는 1차 평가를 거쳐 참여기관을 선정하고, 전문가의 컨설팅과 2차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다듬어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한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매년 적잖은 성과를 내며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8년에는 ‘세종교통사관학교’ 등 11개 사업에서 184명을 대상으로 취·창업을 지원했다. 2019년에는 ‘로컬푸드 플래너 일자리 창출’ 등 13개 사업으로 255명, 2020년에는 ‘경력단절여성 양육교육서비스기업 취업연계’ 등 11개 사업으로 329명을 대상으로 취·창업 지원이 이뤄졌다. 시는 향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서도 실질적인 취·창업과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고도화하는 데 힘쓰고, 나아가 지역의 산업구조와 시민의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현황

2020. 08. 21. 기준

구분	단위 사업명	수행기관	사업비(백만 원)			취·창업, 지원실적	
			계	국비	시비	목표(명)	실적(명)
합계			2,512	1,659	853	329	215(65%)
소계	지역혁신프로젝트(4건)	4개소	880	615	265		
지역혁신 프로젝트	스마트시티 산업 성장도약 컨설팅	한국발명진흥회	286	200	86	20	31(155%)
	스마트시티 지역기업 사업화 지원	과학기술인협회	300	210	90	40	6(15%)
	스마트 일자리창출 플랫폼 구축	고려대 세종캠	172	120	52	100	52(52%)
	스마트시티 산업 고용역량 강화	세종인자위	122	85	37	—	—
소계	고용환경개선사업(2건)	2개소	420	294	126		
고용환경 개선사업	세종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	세종상공회의소	286	200	86	80	95(119%)
	명학산단 통근버스 임차 지원	명학산업단지	134	94	40	40	30(75%)
소계	일반사업(3건)	3개소	428	300	128		
일반사업	문화기획자 창업 지원	사)이음	114	80	34	14	1(7%)
	경단녀 양육교육서비스기업 취업연계	대전세종충남 여성벤처협회	100	70	30	14	0(0%)
	융합보안 전문인력 양성	사)사회적공유연구원	214	150	64	21	0(0%)
소계	인자위 운영지원(2건)	1개소	784	450	334		
인자위 지원	인력양성팀 운영 지원	세종인자위	617	350	267	—	—
	산업고용정책팀 지원	세종인자위	167	100	67	—	—